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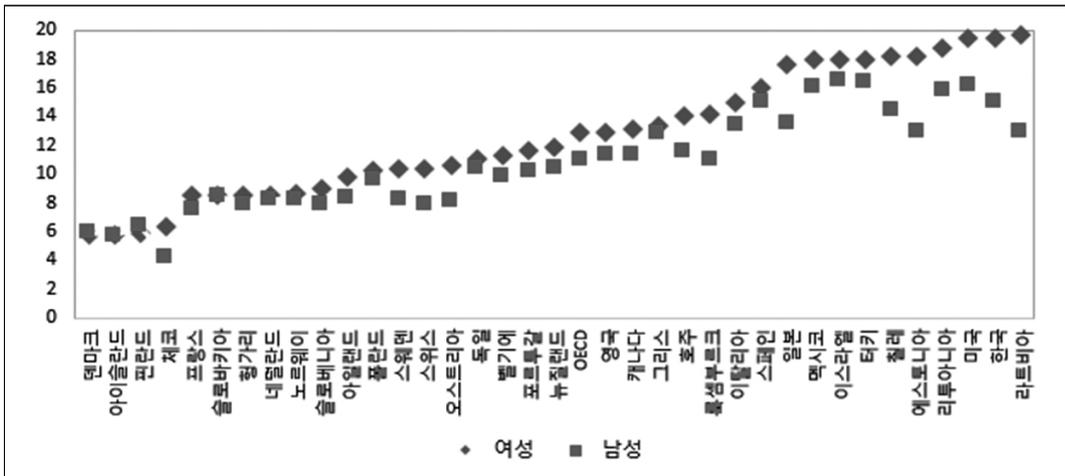
COVID-19로 인한 성별 빈곤율 비교

○ OECD 보고서(2020. 4)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병으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큰 위험에 처해 있으며, 특히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직업, 산업, 소득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함.

-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보다 평균적으로 짧은 시간 일하고, 적은 수입과 짧은 직장 생활을 경험하며, 기본적인 사회적·법적 보호와 고용혜택이 부족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 여성이 해고의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쉬움.
- 고객과의 물리적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산업(항공운송산업 47%, 식음료 서비스업 53%, 숙박서비스업 60%, 소매업 62%)을 중심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 산업들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가 실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그림 1] OECD 회원국의 성별 빈곤율(201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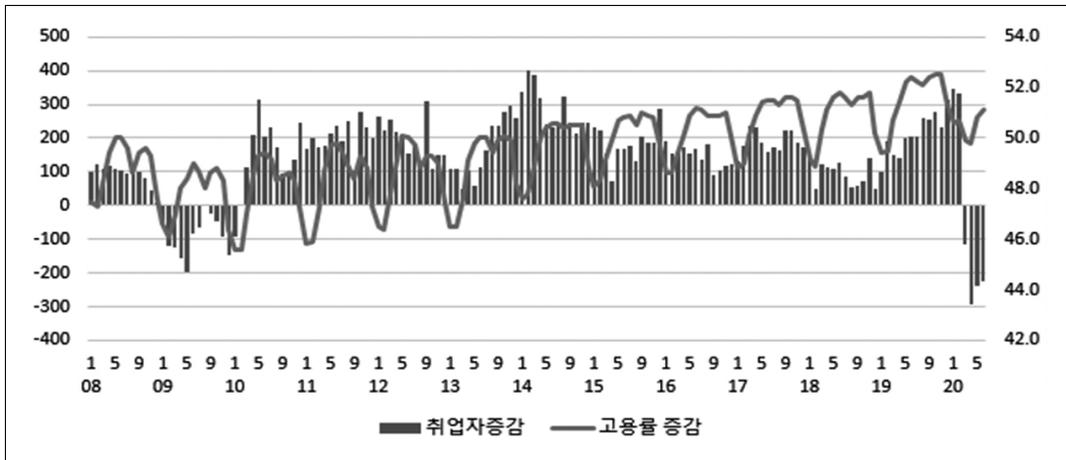
- 여성의 소득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낮고, 빈곤율은 더 높기 때문에 경제위기로 인해 남성보다 소득 손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가정에서 갖는 돌봄 책임이 남성보다 더 커서 해고·실직 이후 대체 고용과 소득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한편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는 남성의 비중이 높은 부문(주로 건설업, 제조업)에서 고용 감소폭이 더 컸고, 반면 여성의 노동시간이 증가하였고, 이후 회복기에 여성의 고용이 남성의 고용보다 빨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7월 현재까지 경제의 전반적인 위축은 각종 지표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에서 취업자는 2분기에만 41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여성(-25만 명, 남성 -16만 명)이 더 큰 영향을 받았음(2020년 2/4분기 기준).¹⁾

- 특히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점업, 기타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부문 등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여성 일자리 감소폭이 컸으며,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여성 근로자 37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취업자 중 일시휴직자는 44만 명(임시직 25만 명, 상용직 9만 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직·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사업 부진과 조업중단으로 인한 일시휴직(휴업)이 26만 명 증가하면서 1분기보다 확대됨.

[그림 2] 우리나라 여성 취업자 증감과 고용률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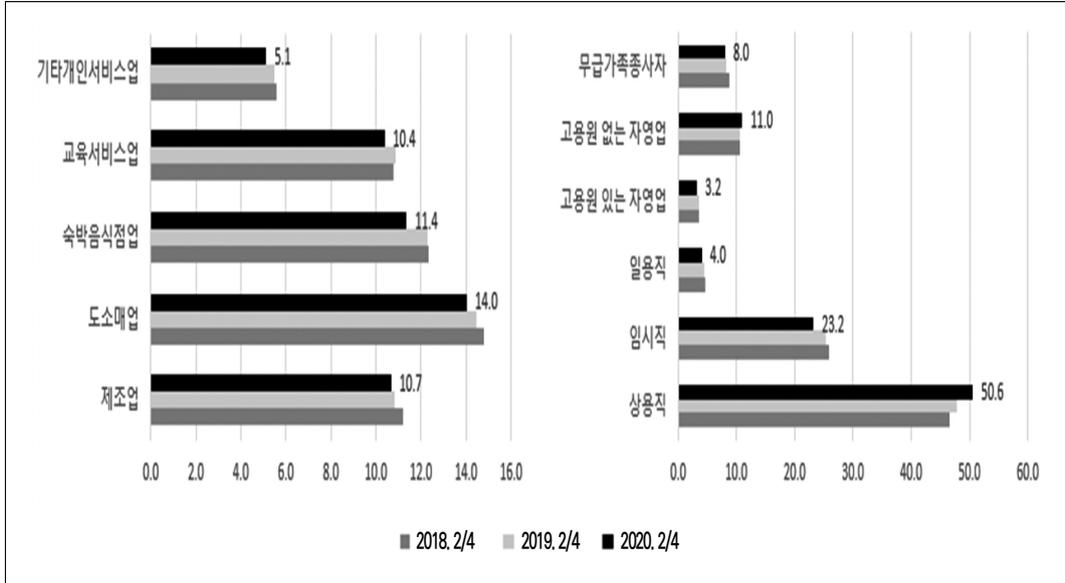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 OECD는 'OECD Employment Outlook 2020'에서 COVID-19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일본,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고용이 가장 작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3] 여성 취업자의 산업별, 종사상 지위별 비중(2018. 2/4, 2019. 2/4, 2020. 2/4)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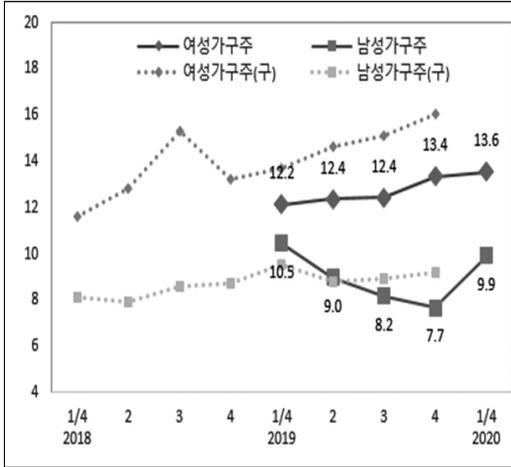
○ 노동시장에서의 실직은 소득 손실로 이어져, 2020년 1분기 여성 취업가구주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2% 감소한 가운데 상대적 빈곤율은 13.55%로 확대됨.²⁾

- 2020년 1분기 여성 취업가구주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220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2% 감소하였으며, 남성 취업가구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78.9% 수준(2019년 1/4분기 84.7%)으로 나타남.
- 특히 일자리 감소가 컸던 임시·일용직의 변화가 1분위 소득의 감소폭 확대로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전년동기대비 11.9% 감소).
- OECD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여성 일자리 감소와 소득 손실은 남성에 비해 컸으며, 결과적으로 성별 빈곤율의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2) 2020년 「가계동향조사(통계청)」는 매월 전국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조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표본규모와 조사방법, 조사항목이 여러 번 바뀜에 따라 시계열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2019·2020년 「가계동향조사」'는 COVID-19로 인한 가계 소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여성 가구주 중에서 취업, 즉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고용원이 있는+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질화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변화를 파악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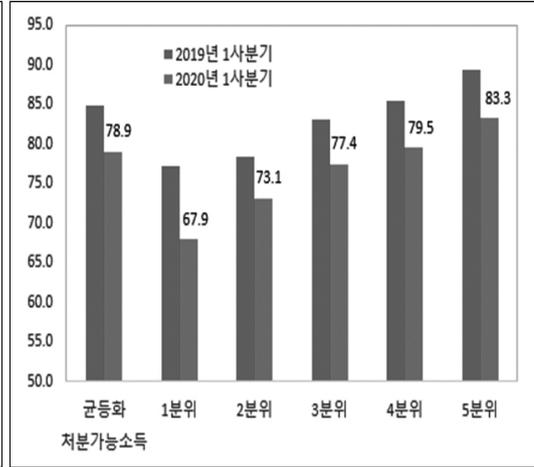
[그림 4] 성별 상대적 빈곤율 추이

(단위 : %)



[그림 5] 성별 분위별 상대소득수준

(단위 : %)



주 : 1) 취업가구주의 실질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2) 가계동향조사는 2018~2019년에는 농어가 제외한 약 8,000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항목을 조사하였으며, 2020년에는 농어가 포함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지출항목을 조사함. 단 2019년에는 2020년 조사와 동일한 소득·지출부문을 통합한 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2019~2020년 결과를 시계열로 비교 가능함.

3) 남성 가구주(구), 여성 가구주(구)는 농어가 제외한 취업가구주의 빈곤율 추이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